

광야를 축복으로 누리는 삶 (신 8:1-6)

오늘은 '광야를 축복으로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때에, 왜 굳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 싸울수 있는 장정만 60만명이었다. 그리고 여자와 노인,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이였을 것이라고 추산된다. 그런데, 현재 전세계에서 7개의 나라만이 군사가 60만명보다 많다. 대한민국도 현재 병력이 53만명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바로 힘 대 힘으로 밀어붙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못하실게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 내셨다. 오늘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다. 분명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것은 큰 축복이었고 구원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월절 어린양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겨냈다.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까지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었나면 바로 광야길이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 한 일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애굽에서 살때보다 더 괜찮고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정상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광야로 먼저 인도하신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다. 성경의 인물들, 렘넌트들 하나같이 보면 꽃길 걸으며 증인된 사람이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체결한 곳은 하나도 어김없이 소위 "광야"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러 길을 떠났지만 가뭄이 들은 가나안 땅을 만났다. 광야였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대적이라는 광야를 만났다. 야곱도 예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20년 도망자 신세라는 광야를 만났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광야를 만났다. 다윗 역시 사울의 살해 위협에 도망다니는 광야를 지나갔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을 섬겨야 하는 광야를 만났다. 에스더, 끊임없이 동족을 죽이려는 위협과 협박이라는 광야를 만났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위협에 시달리며 약 13년의 시간동안 숨어서 지내야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광야를 걷게 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면 우리는 머리와 마음으로 만난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증인되기 때문이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하면 여기서 "미"라는 접두어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이다. 바로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다. 즉 광야라는 단어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그렇게 인식한 것이다. 곧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곳임을 믿는다. 특히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광야에서 시작하셨다. 거기에 사단의 거센 공격까지 받아야 했다. 사단의 조롱까지 받아야 했다. 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데서 뛰어 내려봐라. 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이 똑같은 조롱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때까지 똑같이 받으셨어야 했다. 광야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광야를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걸어가셨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실 이 광야가 필요했는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때까지가 다 광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보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광야, 고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는다. 그냥 이겨낼 정도가 아니라 그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증거할수 있게 될 줄로 믿는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전도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여

러 가지로 어려운 광야 속에 들어가신 분들을 많이 만나왔다. 사실상,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광야였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동부로 이사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와서 우리 교회로 오신 중직자 가정도 있다.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해도 동부와 서부가 같은 미국이 아니다. 익숙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을 두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른이든 아이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말 잘듣던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부모의 속을 썩히기도 하고, 또 어른이 되었다고 속을 썩히기도 한다. 때로는 건강하던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제가 다 말로 열거할수 없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광야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그 크기와 파장만 다를 뿐, 지금 잔잔하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밀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광야가 축복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절망과 어려움과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히려 축복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한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광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복음으로 광야를 축복으로 누릴수 있을까?

1. 하나님이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2절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일부러 인도하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면 여기에 한국어 목적어는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어는 40년 걸어진 광야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통과외레라는 말이 있다. 인생의 각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서 1년간 생존해서 평생을 살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에서 돌잔치라는 통과외레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살이 되면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성인이 되는 날 술을 마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우리에게 통과외레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광야는 그냥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의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함같이 너를 징계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이들 혼내키면서 때릴 때 속 시원하고 재미있고 즐기는 부모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보내실때에는 부모의 심정이었다는 말이고, 하나님도 그 길이 고생길인줄 알고 마음 아프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신 이유가 있다. 여기서 징계함, 약사르 라는 단어는 "바로잡기 위하여 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로 잡으셨어야 했을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살수 있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것 같은 그 삶이 사실은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다 너를 도와주고 공급해줄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라. 세계 복음화하라는 그 말씀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을 거친 인간은 창세기 11장에 와서 결국 어떻게 하나? 우리가 흠여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여살자, 즉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갔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힘으로 탐을 쌓고 그 위에 우리 이름을 내고 잘 살아보자. 이 결정판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언약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왔다. 그것이 우리에게 체질되어 있고, 각인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무것도 기대 할수 없다. 온통 문제 뿐이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셨다. 아무것도 되는 일 없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해도 우리는 괜찮다. 40년동안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각인 시키신 것이다.

이제 내일 모래면 올해도 두달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안남은 것 같다. 그런데, 단어 하나 바꾸어 보겠다. “두 달 밖에”에서 “두 달 이나”로 바꾸는 것이다. 올해도 두달이나 남았다. 아직, 바꾸니까 느낌이 어떤가? 단어 하나 바꾸어도 느낌과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번도 밥이 없어서 문제다, 옷이 없어서 문제이다. 돈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왔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밥과 옷, 돈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는 곳으로, 나의 산업이 무너진 곳으로, 나의 관계가 무너진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다. 광야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문제에,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절망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겨낼수 있다는 것을 40년동안 경험시키시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좋을때도 축복이요, 고난도 축복이요, 광야도 축복임을 누릴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란다.

2. 말씀을 따라가라.

고난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문제는 끊임없이 오는 것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늘 허우적 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뿐이다. 오늘 본문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당할때도 인용한 말씀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의 인생은 떡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다는 것 도 알아야 한다. 떡은 무엇을 위해 필요하나? 나를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게 없는 것이다. 떡이 인생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의 인생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육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원래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에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네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1절에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였다. 그런데 계명 잘 지키고 율법 잘 지켰던 이스라엘도 결국 망했다. 그 이유는 핵심이 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명령을 지키는 나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패한 것이다.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목적이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르기를 바라셨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선악과만 안 먹으려고 하니 사단이 속이기가 너무 쉬웠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 3절 말씀에 “너를 낫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본능은 배고프면 보이는 것이 없다.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낫추셔서, 즉 광야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으로 보내셔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공포감을 상상해 보라. 그런데 그 상황속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죽을 것 같은 상황속에서도 죽지 않게 하신 것이다. 왜? 떡이 없어도 안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다. 4절에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옷 한 벌로 40년 입었다는 말이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언제 옷이 헤어질때까지 입는가? 돈이 없을 때. 새로 옷을 살 돈이 없으면 계속 입던 옷을 입어야된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불가능한 곳에서 그런일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주었기 때문에. 또 발이 부르츠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은 왜 부르츠나? 오래 걸어서, 고생하면 부르츠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40년이 광야여서 그렇지 그 안에서 사실 그렇게 고생도 안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광야로 느끼는 지금 이 상황속에서 우리는 사실 무엇이 진짜 고생인지 사실 잘 모른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오직 말씀대로 따라만 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다른 기준으로 광야를 보게 된다. 그러면 광야는 그 자체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거기에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인도하지 않으셨나? 저도 과거에 돈이 없어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수는 없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다 지나갔다. 심지어는 놀랍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 우리 모두다 어렵고 힘든 시절 있었다. 그런데 사실 힘들었지만 못먹거나 죽지 않았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 것이다. 이것만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언약만 발견하게 되면 광야,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모든 삶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3. 말씀 따라가는 영적 시스템

전도시스템이 무엇인가? 다락방, 지교회같은 것이 전도시스템이다.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서 그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이 연결될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안에 들어올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을 전도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시스템은 무엇인가?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때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시스템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광야를 만나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을 점검하기 바란다. 예배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한다. 정말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받는 것이 예배이다. 기도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갈망하는 것이 기도이다. 다윗은 시편 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라고 고백했다.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이 말씀으로 인도 받을 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붙잡으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하나 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러 고성을 아무소리 하지 말고 돌라고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미친짓이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잡았으니까 돈 것이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백 번씩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테슬라를 한 대 사주겠다고 했다면,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저에게 하루에 백번씩 목사님 존경한다고 할 것이다.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정말로 붙잡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로 광야를 이겨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방향, 중요한 가치들이 다 바뀐 사람들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나는 안정되고 보장된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직업과 삶의 모든 과정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다. 기억할 것은, 말씀만 따라가라. 말씀만 따르시기 바란다. 명령에 순종하라.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라다. 이 모든 것은 다 100% 나를 위해 주신 것이고, 100%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었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